2022년 4월 20일 수요일

장애공감신문

☎ 070-4916-1676
☎ 442-2188
FAX 443-2992

'장애인의 날'이란?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20일로,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하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에 대해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정한날입니다. 평소에 잘 모르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서 오늘 하루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봅시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장애에 대한 편견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도로의 노란 점들.. 도대체 뭘까?

톡톡, 톡톡, 톡톡. 길을 걷는 시각장애인들은 하얀 막대기로 길을 두드리면서 걸어가요. 무엇을 두드리는 걸까요? 길에 정답이 있습니다. 올록볼록 튀어나온 노란색의 보도블럭인데요, 시각장애인들이 도로의 상황을 파악하도록 돕는 **시각장애인 전용 도로**랍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지팡이로 바닥을 한 걸음에 두 번씩 톡톡 치면서 점자블록을 따라 걷습니다**. =모양의 점자 블록은** 앞으로 직진하라는 뜻이고**, 동그란 무늬가** 새겨진 블록은 멈추라는 뜻이에요. 점자블록은 도로의 상황과 방향을 알려 주고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걷기 위해 꼭 필요해요. 하지만 깨지거나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과, 점자블록 위를 가로막는 불법 설치물이 많아서 시각장애인들이 아찔한 순간들이 많다는 사실.. 이렇게 중요한 점자블록, 잘 설치되도록 매의 눈으로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절대! 쓰지 말아야 할 '장애인 차별 용어' 모음

일상에서 가끔 혹은 자주 쓰이지만, 그 이면에는 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장애 비하 용어들을 모아봤습니다.

- 병신, 애자, 장애자, 불구자 → 장애인
- 맹인 → 시각장애인
- 농아 → 청각장애인
- 간질 → 뇌전증
- 정신병자 → 정신질환자
- 정상인 → 비장애인
- 귀머거리 → 청각장애인
- 벙어리 → 언어장애인
- 절름발이 → 지체장애인
- 장애를 앓고 있는 → 장애를 갖고 있는
- 불구가 되다 → 장애를 갖게 되다
- 장애를 극복한 →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님)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들이 우리 곁에 있는 장애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단어 하나부터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배리어 프리' 사회로 다가가는 한 걸음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해도 입모양이 보여요!

마스크로 가려진 입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 다들 있지 않나요? 하지만 특히 더, 일상생활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각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입술 모양을 읽으며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버린 삶이 더욱 불편하게 다가옵 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발명품, 바로 '립뷰 마스크'입니다. 청각장애인 뿐 아니라 청력이 좋지 않은 노인들, 한글을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에게도 효과적인 발명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반짝 상식!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잠깐은 괜찮겠지?

안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리가 없더라도 일반 차량은 절대 주차를 해선 안됩니다. 일반 차량이 주차를 했다가 적발되었을 땐,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사진처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진 않았지만 그 앞을 가로막고 주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벌금이 10만원이지만, 이렇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에는 벌금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벌금을 피해보려다가 5배의 벌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장애인주차구역은 항상 비워놓읍시다!